

시대적 흐름에 따른 옷걸이 변화에 관한 연구
-1850년경부터 2003년까지-

Analysis on pictical changes in Hanger Design:
From 1850 to 2003

조 숙 경

시대적 흐름에 따른 옷걸이 변화에 관한 연구 -1850년경부터 2003년까지-

조 숙 경*¹

Analysis on pictical changes in Hanger Design: From 1850 to 2003

Sook-Kyung Cho*¹

목 차

1. 서론	3-2 기본형
2. 재료 및 시대별 조형분석	3-3 휴대용
2-1 재료	3-4 다기능
2-2 조형	
2-3 한국 옷걸이의 고찰: 헛대	4. 결론
3. 옷걸이의 기능에 따른 유형 분석	
3-1 인체공학적 분석	5.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aesthetics and materials us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hanger designs from 1850 to 2003. At the second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most hangers were handmade and made of wood and metal. At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such diverse materials as paper, plastics, and leather began to use other than such typical materials as wood and metal at the previous decades. However, from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use of different types of plastics led to artistic abnormal shapes within typical triangular types. Moreover, this study also examines hangers by its functions: primary, portable, and multi-functional types.

*1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Dept. of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121-791. Korea

1. 서 론

옷장의 문을 열면 옷걸이에 걸린 옷들이 눈에 들어온다. 옷옷과 함께 걸려있는 바지도 있고, 하지만 따로 걸려있기도 한다. 옷장이 아니더라도 편의상 벽의 못에 걸려있거나 바닥에 세워진 옷걸이에도 삼각형의 옷걸이에 먼저 걸쳐져 있는 상태를 자주 볼 수 있다. 옷을 판매하는 매장엘 가도 옷들은 마네킹에 입혀져 있거나 옷걸이에 걸려 있다. 즉 옷은 인체의 어깨굴곡선과 흡사하게 만들어져 마치 인간이 입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걸려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옷이 구겨지지 않고 청결하게 그 형태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옷걸이는 흔히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이지만, 그 기능이나 디자인 그리고 재료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옷걸이의 역사적 변천사를 살펴보고 기능적으로 분류 및 분석하여 그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옷걸이 디자인의 활성화에 자극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1850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의 옷걸이들을 각종 책과 잡지에 소개된 여러 나라들의 예를 들어 연구하였다. 여기에서 옷걸이란 스탠드용이나 우산 또는 모자걸이를 동반한 것이 아니라 못이나 행거 같은 가로대에 걸려지는 삼각형의 옷걸이를 말한다. 연구방법은 디자인 관련서적 및 각종잡지, 기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것들을 시대별로 기능적, 재료적으로 분석하고 인간공학적인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 자료를 연구하였다.

2. 재료 및 시대별 조형분석

2-1.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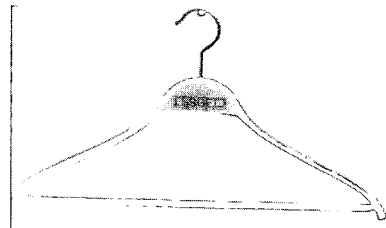
옷걸이에 쓰인 주된 재료는 금속, 목재, 플라스틱이며, 이들 2-3개의 재료가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먼저 금속재료로는 동, 철, 스테인레스 스틸 그리고 알루미늄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철은 적당한 강도와 가격이 저렴한 관계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현대에 와서는 가볍고 가공이 용이한 알루미늄 제품이 대두되고 있다.



<그림1> 알루미늄, 2000, 일본

목재는 가공이 용이하나 수작업이 많은 관계로 중·고가의 옷걸이에 많이 사용된다. 몸체 부분은 목재로 만들어지나 못에 걸리는 부분은 마찰과 강도의 문제로 금속을 사용하는 예가 많다. 과거에는 주로 원목을 사용했으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림2>와 같이 합판의 적층 곡목기법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목재 옷걸이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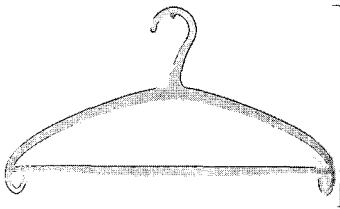
<그림2> 목재, 1990, 스웨덴



<그림3> 목재, 2000, 타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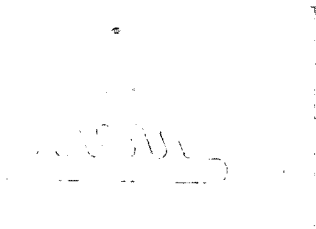
두개의 나뭇가지를 끼워 만든 <그림3>은 최근의 작품이기는 하나 마치 우리나라의 마을 입구에 세워졌던 솟대를 연상하게 하는 자연적이고 동양적인 미를 엿 볼 수 있어 장식적인 효과가 크다.

세 번째로 플라스틱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옷걸이의 주된 재료로 쓰이고 있다. 이 재료는 금형을 위한 기계설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나 대량으로 찍어 낼 수 있으며, 가공시간이 짧고, 다양한 색상이 용이하여 경제적인 재료로 많이 선택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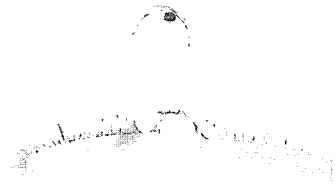
<그림4> 플라스틱, 2000, 핀란드

이외에도 옷걸이에 사용된 재료에는 종이와 섬유가 있다. <그림5>와 같이 두꺼운 종이를 이용하거나 골판지로 만들어진 옷걸이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가벼우나 오래 사용할 경우 손상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그림5> 두꺼운 종이, 2000, 영국

<그림6>은 목재 심을 솜으로 둘러싼 다음 천으로 마감한 후 리본을 묶은 옷걸이로 촉감이 부드럽고 옷의 어깨선이 손상 없이 자연스럽게 잡히도록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노끈이나 천으로 된 끈 또는 레이스 실로 마감한 옷걸이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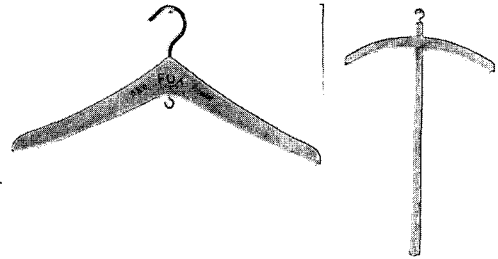
<그림6> 목재심, 솜, 섬유, 1950, 미국

2-2 조형

조형적인 측면을 시대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1850-1900년

이 시기는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가 대중을 위한 수공예를 주장하였던 때로 옷걸이의 대부분이 손작업에 의한 목재와 금속으로 이루어졌다. 옷옷을 걸치기 위한 삼각형 구도의 기본적인 형태가 주류를 이루면서 높은 곳에 걸거나 아래로 내릴 때 편리하도록 만든 손잡이를 부착한 십자가 모양의 옷걸이<그림8>을 엿볼 수 있다. 후반에 이르러 바지를 함께 걸 수



<그림7> ◀ 목재, 금속, 1900년경, 미국

<그림8> ▶ 목재, 금속, 1890년경,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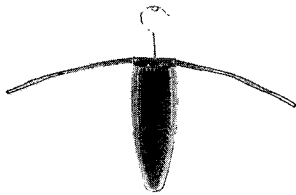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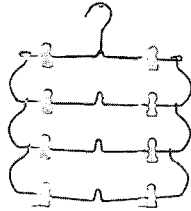
있도록 고리를 부착하거나 <그림7>과 같이 옷걸이 아래 부분에 고리가 하나 더 있어 옷걸이를 이어 걸 수 있도록 한 것들이 나타난다.

둘째: 1900-1950년

이 시기에는 기능성이 강조된 옷걸이들이 대

거 등장하는데 바지와 머플러를 함께 걸거나 <그림9>와 같이 옷을 여러 번 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그림10>과 같이 휴대하기 편리하게 접을 수 있는 옷걸이가 만들어지며 옷걸이의 양 날개 끝에 술을 부착하여 옷의 먼지를 터는데 용이하도록 만든 다기능성 옷걸이가 등장한다. 이러한 특징은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모더니즘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9> 금속, 플라스틱, 20C 중반, 프랑스



<그림10> 목재, 금속, 술, 가죽, 1945, 영국

셋째: 1950~2003년

삼각구도의 기본형을 중심으로 대량생산에 가까운 형태보다는 예술성이 강조된 제품들이 등장하였다. <그림11>은 기존의 옷걸이 형태를 과격적으로 탈피한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그림11> 철사, 폴리우레탄, 2000, 네덜란드, Bos & Couvee



<그림12>플라스틱, 금속, 1999, 프랑스, PERIGOT사

<그림12>에서는 플라스틱과 금속의 절묘한 조화를 엿 볼 수 있으며, 공기를 이용해 부피를 주었기 때문에 옷걸이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다.

이 시기의 옷걸이들은 이전의 작자미상과는 달리 디자이너가 알려져 있는데, 그 만큼 많은 디자이너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의 개성강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현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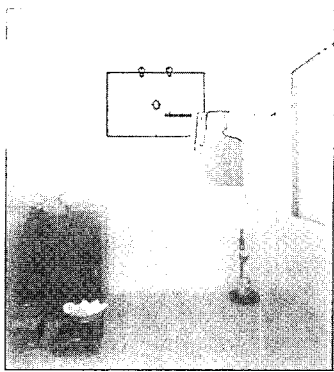
2-3 한국 옷걸이의 고찰: 햇대

옷걸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옷을 걸게 만든 기구, 햇대, 햇줄, 말코지 같은 것, 의가(衣架)”¹⁾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햇대란 <그림13>과 같이 1~2mm길이의 대나무나 목재로 된 막대기에 끈을 묶어 벽에 걸고 거기에 옷가지를 걸어 놓은 것을 말한다. 이 햇대에는 민화적인 도안이나 문양을 넣어 아름답게 장식한 것도 있다. 남아있는 유물은 조선시대의 것으로 목재로 되어있고 봉의 길이가 125cm, 직경이 3.5cm로 양쪽 끝에 낫쇠로 봉 장식을 만들어 씌우고 양쪽에 고리를 하나씩 만들어 끝을 연결한 것이다.²⁾ 이러한 삼각형의 구도는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옷걸이와 비교해 볼 때 기능적인 면에서 그 사용방법이 다르기는 하나 형태 면에서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햇대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1) 동아대백과사전

2)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주우순, <한국현대 옷걸이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9

알 수가 없으나 개량주택과 현대식 옷장이 생기기 전까지 한국주택의 방벽에는 햇대가 장치되어 있었다.³⁾



<그림13> 안방의 햇대

즉, 서민들의 주택에 사용된 가구들은 상류층의 경우보다 그 종류가 적었는데, 위 그림과 같이 서민층의 안방에는 한쪽 벽면에 햇대를 매어 옷을 걸어 두도록 하였다.

주자가 쓴 해동소학⁴⁾의 명륜편에 보면 “부부지별(夫婦之別)”이라 하여 서술한 글 중에 햇대에 관한 글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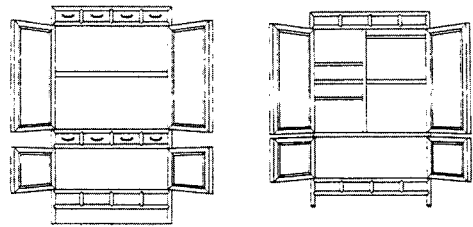
“...남녀는 옷을 거는 햇대를 같이 쓰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의 옷걸이에 옷을 걸지 못하며, 남편의 상자에 넣어두지 못하며, ...”

농가월령가⁵⁾의 십이월령(十二月令)에는 아래와 같은 가사가 나온다. “...집안의 여인들은 세시의복을 장만할 제 무명 명주 끊어내어 온갖 무색 들여 내니 자주보라 송화색에 청화갈매 옥색이라. 일변으로 다듬으며 일변으로 지어내니 상자에도 가득하고 햇대에도 걸렸도다....”

이와 같이 안방뿐만이 아니라 사랑방에도 햇대가 있었으며, 서민들의 생활에 빼 놓을 수

없는 도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14>는 조선조 의걸이장의 내부구조로 우리나라의 옛 가구 중에서는 의걸이장에 옷을 보관하였다. 좌측은 상단에 햇대 하나만을 설치하여 의복을 걸어두고 하단은 수납공간으로 되어있는 것과 우측처럼 햇대를 달아 의복을 수납하고 좌측에는 2단 층널을 달아 책이나 소품을 보관하도록 제작 되었다.⁶⁾



<그림14> 조선조 의걸이장의 내부구조

뚜렷한 사계절로 인해 많은 의복을 보관해야만 했던 만큼 의걸이장과 함께 발달했던 햇대는 주택과 의복의 변화로 외국에서 들어온 삼각형의 옷걸이가 보편화 되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 고유의 옷걸이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옷걸이의 기능에 따른 유형 분석

옷걸이는 기능적으로 분석 할 때 기본형, 접이식 그리고 다기능형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3-1. 인체공학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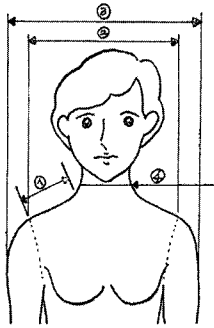
옷걸이를 디자인 할 때 필요한 인체치수는 어깨길이, 어깨너비, 몸통너비 그리고 목둘레 등이다.

3) 이종호, 이충섭, 한국민속학, 1980, p37

4) 주자(朱子)가 제자 유자징에게 소년들을 학습시켜 교화시킬 수 있는 내용의 서적을 편집하게 하여 주자가 교열, 가필한 것으로 1185년에 착수하여 2년 뒤에 완성하였다.

5) 이조 현종때 정약용의 둘째 아들 정학유(1786-1855)가 지은 월령체 장편가사이다.

6) 손용기, 조선조 의걸이장을 응용한 의장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논문, 1993, p27



<그림15> 옷걸이 디자인에 필요한 인체치수부위(여)

- ① 어깨길이: 목 옆점에서 어깨끝점까지의 길이
- ② 어깨너비: 좌우 어깨점 사이의 직선거리
- ③ 몸통너비: 몸에 팔을 붙이고 섰을 때 좌우 팔을 포함하여 몸통의 좌우 최대 직선거리
- ④ 목둘레: 갑상연골 부위를 지나는 목의 둘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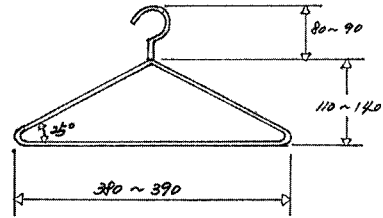
아래의 <표1>은 옷걸이 디자인에 필요한 20세에서 39세까지의 성인 남녀의 인체치수 자료이다.⁷⁾

인체부위	여 자	남 자
① 어깨길이	13.4 - 14.2	15.2 - 15.4
② 어깨너비	35.0 - 35.3	37.9 - 38.4
③ 몸통너비	40.0 - 42.1	44.4 - 45.9
④ 목 둘 레	30.8 - 31.6	35.7 -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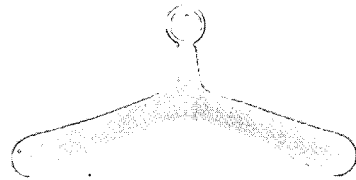
<표1> 옷걸이 디자인에 필요한 인체치수 (단위: cm)

옷걸이마다 치수가 다양하나 기본치수는 아래 <그림16>과 같다. 먼저 못이나 대에 걸게 만들어진 맨 윗부분의 고리는 개폐형과 폐쇄형<그림17>로 나뉜다. 한쪽이 트여있는 개폐형은 못이나 대에 자유롭게 걸거나 뺄 수 있어 자주 쓰이고 있으며, 폐쇄형은 가로대에 걸고 빼기가 불편

해서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고리는 대부분 물음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금속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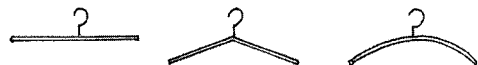


<그림16> 기본형 옷걸이의 치수(단위: mm)



<그림17> 금속, 2001, 이탈리아, Satyendra Pakhale

다음은 어깨를 바치는 양쪽 날개인데, 이것 또한 수평, 사선으로 기운 것, 그리고 곡선으로 휘어진 것들로 다양하다<그림18>. 날개가 수평인 것은 전통한복 걸이로 용이한데 이는 한복의 어깨선이 수평이기 때문이며, 현대의 복에서는 그리 많이 쓰이지 않는다. 사선과 곡선은 인체의 어깨선과 흡사하여 자연스러운 의복의 선을 만들어주어 자주 쓰이는 형태이다. 두께는 얇은 것도 많으나 어깨의 볼륨을 살려 자연스레 받혀주는 두툼한 것이 좋다. 끝으로 양쪽 날개를 이어주는 가로대는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줄뿐만 아니라 바지걸이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과 옷이 넘나들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이 필요하며, 제작 과정의 단순함은 물론 디자인적인 조화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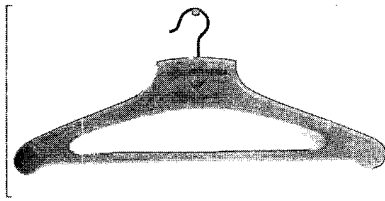


<그림18> 옷걸이의 세 가지 기본 유형

7) 이재환, 인체와 산업디자인, 조형사, 1996, 추진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사기간: 1992년

3-2.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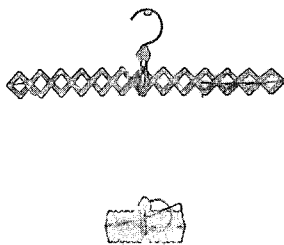
옷걸이의 기본적인 형태는 세 개의 꼭지 점을 잇는 삼각형을 띠고 있다. 즉 못에 걸리는 부분과 옷을 걸 수 있게 양쪽 어깨를 연결하는 가로대가 결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 의류매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기본형의 기능은 주로 옷을 걸쳐 놓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바지를 걸 수 있는 가로대가 있다.



<그림19> 목재, 1930, 프랑스

3-3. 휴대용

옷걸이의 양쪽 날개를 접어 부피가 줄어들고 따라서 휴대가 간편하거나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이 용이한 형태이다. 여행할 때나 자동차 안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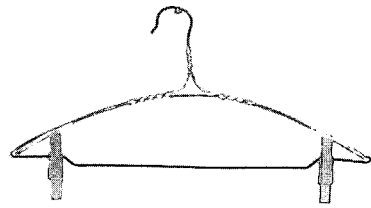


<그림20> 금속, 1930, 독일

3-4. 다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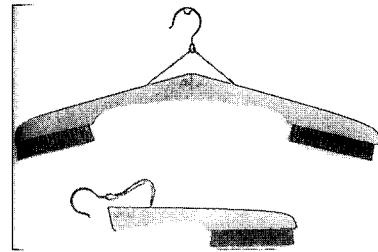
여러 가지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형태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옷을 걸 수 있는 기본형에서 양쪽 어깨 점에 고리나 집게를 부착하거나 가로대를 설치하여 바지나 넥타이 또는 치마를 같이 걸어 놓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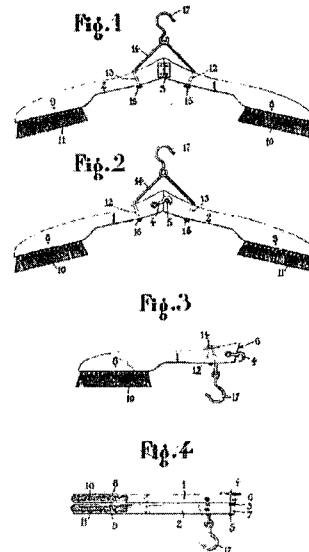


<그림21> 금속, 1930, 미국

둘째는 <그림22>와 같이 술을 양쪽 어깨에 부착한 것으로 옷을 입기 전에 먼지를 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것은 위 3-3의 휴대용에도 속하는 접이식이다. <그림23>은 이 옷걸이의 도면으로 접히는 원리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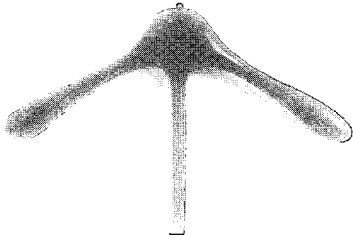


<그림22> 목재, 면사, 술, 1940, 프랑스



<그림23> 그림22의 도면

셋째는 높은 못이나 가로대에 쉽게 걸고 내릴 수 있도록 기본형의 중심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대를 부착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1850년대 초에 많이 나타나는데 옷걸이만 벽에 걸려있을 경우, 십자가 형태로 인한 종교적인 냄새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림24>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1850년대 보다는 십자가 모양에서 탈피한 형태이다.



<그림24> 플라스틱, 2002, 네덜란드, Jack Brandsma

4. 결 론

의류매장은 물론 일반가정에서도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옷걸이는 한 개에 120원하는 플라스틱제부터 700원 하는 목재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렇듯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걸이의 디자인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옷걸이가 옷에 가려져 그 조형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고급의류 매장에서는 간혹 독창적인 옷걸이를 볼 수 있으나 가정에서는 보통 옷장 속에 들어가 있어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욕구가 훨씬 덜 한 이유이다. 그러나 개성중시의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이 가려지는 작은 부분에서도 디자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탁소에서 옷과 함께 배달되는 균일한 옷걸이가 아니라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독창적인 옷걸이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종합해 볼 수 있다.

	재 료	조 형
1850-1900	주된 재료는 목재이며, 못이나 대에 걸리는 고리부분에는 금속이 쓰였다.	초기에는 옷옷을 걸치는 “人”이나 삼각형의 기본형과 높은 곳에 걸 수 있는 십자가 모양의 수직의 긴 대를 부착한 것이 많다. 후반에는 바지를 같이 걸 수 있는 고리를 부착한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기능 옷걸이의 등장을 암시한다.
1900-1950	목재와 금속 이외에도 종이, 플라스틱, 천, 가죽 등의 다양한 재료가 등장한다.	양쪽 날개가 가운데로 모아지거나 한 쪽으로 접히는 휴대용 옷걸이를 비롯하여, 양끝에 솔을 달아 옷의 먼지를 털 수 있게 한 다기능성 옷걸이들이 대거 등장한다.
1950-2003	플라스틱 재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트라이앵글과 같은 삼각형의 기본형이 주류를 이루면서 파격적인 형태의 예술적인 제품들이 나타난다.

5. 참고문헌

1.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2. 손용기, 조선조 의결이장을 응용한 의장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3
3. 이재환, 인체와 산업디자인, 조형사, 1996
4. 주우순, 한국 현대 옷걸이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9
5. Hans Martin, Grundlagen der menschengerechten Arbeitsgestaltung, Bund Verlag, 독일, 1994
6. Lan Hammond/Julien Levy, Cintres Hangers, Le Passage, 프랑스, 2002
7. www.skydisplay.co.kr
8. www.display2001.co.kr
9. www.jaedo.com
10. www.kyunghwa.or.kr